



##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6년 7월 29일, [www.forumvostok.ru](http://www.forumvostok.ru)

### 동방경제포럼에서 중국과 자루비노항을 잇는 초고속운송로 프로젝트 발표

«협력사들이 동방경제포럼 발표를 위해 프로젝트 파라미터를 연구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기에 앞서 프로젝트의 외형을 파악한 후 결정을 해야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투자이기 때문에 파일럿 프로젝트의 원리 이해 없이 이런 금액을 투자할 투자자는 없을것입니다.»라고 러연방 교통부 막심 소콜로프 장관이 밝혔다.

앞서 2016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Hyperloop One 공동설립자 중 한명인 세르빈 피세바르와 짧은 면담을 가지고 고속 화물 운송 프로젝트를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 러연방 교통부는 중국에 연해주 자루비노 항구까지 초고속운송로 시범구간을 건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https://forumvostok.ru/na-vostochnom-ekonomicheskom-forume-predstavlyat-proekt-skorostnogo-zheleznodorozhnogo-marshruta-iz-kitaya-v-port-zarubino/>

2016년 7월 28일, [www.primorsky.ru](http://www.primorsky.ru)

### 유리 트루트네프 전권대표 극동연방대학교 캠퍼스 동방경제포럼 준비도 평가

전권대표는 캠퍼스 내 회의실, 전시구역과 같은 비즈니스 일정 행사장들을 방문하였다. 부총리는 시찰에서 보안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아약스 만 해변도로에서 극동지역 대표들과 연방정부기관 대표들이 «극동의 거리» 축제에 사용될 전시부스 안을 발표하였다. 9월 1~4일간 루스키 섬 해변도로에 20여개의 전시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의 핵심은 극동의 9개 행정지역 전시관이 될

것이다. 전권대표는 손님들이 해당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만한 전시를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http://primorsky.ru/news/115103/>

2016년7월 28일, www.Vladnews.ru

### 연해주 호텔 동방경제포럼 준비도 점검 개시

특별실무위원회가 5성급 현대호텔과 4성급 아스토리아 호텔을 검사하고 양 호텔이 고위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판정하였다.

서비스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것을 호텔측에 권고하였다.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각 객실에 동방경제포럼 안내 책자를 비치할 예정이다. 연해주 관광국 콘스탄틴 세스타코프 국장은 동방경제포럼 방문객들을 위한 권장 호텔 목록이 준비되어 있음을 밝혔다. 총 5500개 객실을 보유한 호텔 30개로 구성된 목록이다. <http://vladnews.ru/3975/novosti/otelyam-rekomendovano-ozabotitsya-bukletami-vef.html>

2016년 7월28일, RIA News

### 캄차카, 동방경제포럼서 총 300억 루블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들 공개

주요 프로젝트들은 공항단지와 어류 가공 및 어업 분야 프로젝트이다. 관광업 프로젝트 제안자들도 동방경제포럼 참여 의사를 밝혔다. 캄차카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호텔의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대규모 종합 프로젝트인 캄차카 선도개발구역 프로젝트가 별도로 포럼에서 공개된다. 지역 주 공항의 공항터미널 건설과 소형항공기 공항 및 온실단지 건설이 포함된다. <http://ria.ru/economy/20160728/1473020766.html#ixzz4Fho6rDbM>

2016년 7월 27일, Interfax

### 2016동방경제포럼배 하키 대회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

동방경제포럼은 스포츠 행사도 풍부하다. 9월 2일 페티소프 아레나 아이스링크에서 하키 전설인 선수와 나이트 하키 리그 대표팀 그리고 동방경제포럼 참가자들 간 경기가 열린다. 같은날 아무르 호랑이와 극동 표범 보호를 홍보하는 달리기 대회도 열린다. 포럼 참가자들을 위해 피트니스 체조, 우수 강습, 극동 단체 오락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9월 1일과 2일에 «플라투-25» 요트대회가 열린다. 포럼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경주 온라인 중계가 있어 극동연방대학교에 설치된 별도의 화면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748369&sec=1671>

2016년 7월 26일, www.forumvostok.ru

### 아태지역 국가들 대사 및 주재 공관 대상으로 2016 동방경제포럼 설명회 진행

극동개발부 투자프로젝트 추진지원국 알렉산드르 크루티코프 국장과 RosCongress 기금 부사장겸 동방경제포럼 이사 이고르 파블로프가 2016동방경제포럼에서 선보일 러시아 및 외국 투자 프로젝트들을 소개하였다. 포럼 비즈니스 일정과 주요 문화일정도 공개되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대사들, 호주,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한국,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일본 대사관 대표들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https://forumvostok.ru/v-moskve-proshla-prezentatsiya-vef-2016-poslam-i-predstavitelyam-diplomaticeskikh-missij-stran-aziatsko-tihookeanskogo-regiona/>

2016년 7월 26일, [www.minvostokrazvitia.ru](http://www.minvostokrazvitia.ru)

### 동방경제포럼서 극동 신규 경제정책 구현 논의

러연방 극동개발부 알렉산드르 오시포프 차관에 의하면 2016동방경제포럼의 주요 안건은 극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규 경제정책이 될것이다.

«지난 한해 국내 및 외국 투자자들은 공동으로 많은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12개의 선도개발구역들이 조성되었습니다. 159명의 투자자들이 선도개발구역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5070억 루블 이상 투자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65개 프로젝트는 필요한 계약이 다 체결된 상태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그 기능을 시작하였습니다. 투자자들로부터 자유항 운영회사로 102개의 공식 신청이 접수되었고 투자총액은 1670억 루블 이상입니다. 52개의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입니다.»라고 러연방 극동개발부 차관이 밝혔다.

신규 투자프로젝트들의 추진은 극동개발기금의 공동투자 덕분에 가능해졌다. 10개의 투자프로젝트들은 최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투자 총액은 1719억 루블이며 이 중 기금 투자액은 158억 루블이다.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473](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473)

2016년 7월 25일, Interfax

### 동방경제포럼 외국 참가자들에게 1주일 무비자 러시아 입국 허용

해당 정부 시행령은 러연방 극동개발부가 작성을 완료하였다. «시행령 안은 포럼 참가를 위한 외국국적자와 무국적자들의 러시아 체류기간을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지정합니다.»라고 극동개발부측은 밝혔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747582&sec=1671>

## 극동 국가정책

2016년 8월 1일, [www.minvostokrazvitia.ru](http://www.minvostokrazvitia.ru)

### 유리 트루트네프 전권대표: «극동핵타르» 법적 기반 개선

특히 «극동핵타르» 지급 프로세스를 가속화 할 예정이며 해당 수정사항을 연방법에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토지 배정 심사를 위한 기간은 30일로 규정되어 있다. 검토기간을 단축하면 기술적인 문제로 기존 신청서가 거부된 경우 새 신청을 보다 빠르게 접수할 수 있게 해준다. «법이 발효되면 신청인의 수가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보유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농업 및 사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주택건설을 위한 저금리대출 및 단체신청을 통한 건축물 인프라 시설 연결도 가능합니다.»라고 트루트네프 전권대표가 밝혔다.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485](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485)

2016년 7월 29일, Interfax

### 트루트네프 전권대표, 블라디보스토크 비자절차 간소화 지연은 이민 리스크 때문

7월 1일 예정되었던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절차 간소화는 세계정세 변화로 연기되었다고 유리 트루트네프 전권대표가 밝혔다. «입국절차

간소화가 일정에 맞춰 도입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 정세 변화로 발생한 이민자 흐름이며 극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트루트네프 전권대표가 밝혔다.

이민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비자절차 간소화의 구조가 변경되었다. «미르» 정보시스템, 국경통과지점의 근대화 및 시스템 테스트가 이루어진 다음에 도입이 될 예정이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749148&sec=1671>

2016년 7월 27일, Interfax

### 극동개발부, 2030년경 극동 인구 증가 800만명 예상

2030 극동 인구전략의 목표는 2020년까지 극동 인구수를 620~63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안정적인 사회경제발전을 통해 인구증가의 기반을 확보하여 2030년에는 인구가 800만명이 되는 것이라고 러연방 극동개발부 세르게이 카차예프 차관이 밝혔다.

극동개발부가 시행한 근로시장의 분석 결과 지역 경제성장 촉진을 통해 2021년 극동연방관구에 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 중 27200개는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들, 2만개 이상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속하게 된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748316&sec=1671>

2016년 7월27일, www.minvostokrazvitia.ru

### 극동 농업 발전을 위해 6억루블 이상 추가 재정 확보

극동지역 간 재정 분배시 우선지원계수를 사용한다. 2016년 2사분기에 2013-2020국가 농업 발전 프로그램과 농산물, 원료 및 식품 시장 관리 프로그램에 우선지원계수가 포함되었다.

«국가정책에 따른 지원금 분배시 증가계수를 사용은 극동지역 발전의 촉진요소입니다. 또한 현존하는 국가정책에 극동 하위정책을 만드는것을 지지합니다.»라고 러연방 극동개발부 아르투르 니야즈메토프 차관이 밝혔다. 증가계수 1.3과 극동 행정단위 5% 수준의 공동지원으로 2011~2020 «적합한 환경» 국가정책에 따른 지원금 분배를 통해 2016년에 극동으로 5200만 루블이 추가로 배정되었다고 밝혔다.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475](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475)

## 극동 경제

2016년 7월27일, www.fishnews.ru

### 극동에서 연어 13만톤 포획

연어 시즌 초부터 극동수역에서 12만 8천 톤의 태평양 연어가 포획되어 2014년도 대비 36% 증가한 수준이다. 가장 수확이 좋은 지역은 캄차카 지방이다. 러시아 수산청 바실리 소콜로프 부청장이 화상회의로 진행한 시즌 관리본부 정기 회의에서 연어포획 현황이 논의되었다. 부청장은 캄차카 지방에서 84000톤의 연어가 포획되어 2014년 기준일 대비 27.4% 증가했음을 밝혔다. 사할린주는 9800톤, 하바롭스크주는 34400톤을 기록하였다. 연해주, 마가단주, 축치 자치구 총 포획량은 4196톤이다. <http://fishnews.ru/news/29168>

2016년 7월 27일, Gudok

### 바이칼-아무르 철도 콤소몰스크나아무레-소벡츠키야 가반 구간 개보수 2016년 투자액 39억 루블

콤소몰스크나아무레-소벡츠키야 가반 철도 구간 작업은 동방 다각형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프로젝트에 따라 앞으로 2년안에 해당 구간에 100억 루블을 투자해 역 8개, 대피선 3개, 2구간 복선이 도입된다.

프로젝트가 구현되면 바닌스키 교통허브 방면으로의 물류처리능력이 2013년도 대비 2배 증가하게 되며 연해주 항구 및 국경통과지점 방면으로는 1.5배 증가하게 된다. 콤소몰스크나아무레-소벡츠키야 가반 구간 개보수 프로젝트 총액은 598억 루블로 평가된다. 이 중 235억 루블은 새로 생기는 쿠즈네츠프스키 터널 공사에 투입된다.

2008-2015년 기간에 신규 터널 공사를 포함하여 15개 역과 1개 대피선에서 기존 철로 연장 및 신규 철로 공사가 있었으며 12개의 대피선, 1개의 역, 3개의 더블트랙, 6개의 복선구간이 새로 생겼다. <http://www.gudok.ru/news/infrastructure/?ID=1345064>

## 극동개발 신규 정책: 성공사례

2016년 7월 29일, Interfax

### 연해주 나데즈딘스카야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 도매유통센터 건설

프리모리에 도매유통센터사는 52000톤의 식품을 저장할 수 있는 지역간 도매유통센터 건설을 계획중이다. 투자규모는 10억 1300만 루블이다.

«저희가 계획한 도매유통센터는 유사 센터들로 구성된 통합연방망의 일부로 1차 건설 대상입니다. 건설은 3단계로 진행되며 모든 단계 투자 총액은 43억 루블 이상입니다. 42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선도개발구역에는 프로젝트 1단계가 신청된 상태입니다.»라고 프리모리에 도매유통센터사 예브게니 콜딘 사장이 밝혔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749109&sec=1671>

2016년 7월 26일, Amurskaya Pravda

### 철구조물 공장 벨로고르스크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되기를 희망

혁신 기술을 사용한 기둥, 가로대, 트러스, 조립체, 저장탱크와 같은 철제 구조물 생산이 계획되어 있다. «투자액은 7억 1600만 루블이며 220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프로젝트 소요기간은 18개월입니다. 벨로고르스크 선도개발구역 예비부지에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투자자 자본과 대출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라고 벨로고르스크 선도개발구역 및 투자 진흥과 라리사 라자레바 과장이 밝혔다.

공장은 아무르주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게 된다고 벨로고르스크 시청측이 밝혔다. <http://www.ampravda.ru/2016/07/27/068517.html>